

## 存在學의 概念

-形而上學 批評- ①

金基錫

새로운 立場

나는 現代의 思惟를 넓은 意味의 希臘的 思惟로 본다. 오늘의 存在學이나 辨證法은 그것이 希臘哲學의 地盤 위에 섰다는데서 그 자신의 옛던 限界를 가진다. 西田哲學의 理解와 批判이 내 자신의 思索의 오랜 議題가 되어 왔다. 이거슨 論稿는 西田哲學을 읽으면서 특히 그 『필로소피렌』을 배흐면서 새여진 한 개의 試論이다. 이 글 속에서 나는 存在의 現實構造를 생각해보면서 겸하여 내 자신의 西田哲學에 대한 理解의 程度를 보였다. 본대 難解라고 일러지는 西田哲學이 내게 잇서서 理解는 커녕 도로혀 그릇된 非難을 맞고 잇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西田哲學을 究竟에 잇서서 헤-겔哲學의 한 改裝으로 보는 나는 그것을 이 世紀가 가지는 한 개의 巨大한 汎神論이라고 부른다.

헤-겔의 觀念辨證法을 絶對辨證法으로 올렸다는 西田哲學 속에서 우리들은 한 개의 새로운 論理의 싹을 본다. 이 새로운 論理는 限定의 論理 場所의 論理로 불리진다. 이 限定의 論理 場所의 論理에 잇서서 오늘의 辨證法이 深化되는 것이 아니라 辨證法 그 自體가 止揚되어 버리고 現代의 思惟가 한 개의 全然 새로운 論理를 길러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가? 이거슨 論稿를 □綠으로하여야 이 땅의 哲學徒들 사이에 잇서서 希臘哲學의 終焉 및 그 □歌로서의 西田哲學이 좀 더 眞率하게 論議되기를 빈다.

存在와 그 思惟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러간다. 사람은 무엇을 헤치면서 이르키면서 사러간다. 사람이 무엇을 헤치고 이르킬 때, 그것이 單純한 『運動』으로 불리지 안코 『行爲』나 『行動』이므로 불리지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일 속에 부단히 생각하는 일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 思惟란 것이 엇더케 하여서 그리고 어느 때부터 사람에게 주

어진 것임을 모른다. 그러나 사람에게 思惟란 것이 있고 이 思惟란 것이 人間을 人間으로 限定하는 빛나는 性格의 하나임을 아나니 사람에게 思惟가 주어진 것을 그대로 한 개의 原本的인 事實로 보지 안혀서는 안된다.

사람은 思惟를 가진다. 이 思惟는 엇던 對象에 향한다. 사람의 思惟는 먼저 자기 周圍에 있는 것들에게 맞난다. 흙을 생각하여 보고 물을 생각하여 보고 산과 바다와 별과 하늘을 생각하여 본다. 그러다가 이 생각하고 있는 主體가 人間임을 알고 도라와 人間을 생각하여 보게 되고 人間 역시 人間の 周圍에 있는 것들과 대개로 크게 버러짐어 업슴을 보고 人間까지 석긴 이 廣大한 世界의 本源 實體 가른 것을 생각하여 보는 자리에 드러선다. 이리하여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아득한 存在의 世界 속에 드러있는 한 개의 조그만 『생각하는 갈대』인 자기를 發見한다.

思惟란 무엇인가. 存在란 무엇인가. 思惟는 存在에 향한다. 存在는 思惟에 주어진다. 存在에 향하지 않는 한에서 存在에 대한 事由는 아니다. 存在에 대한 思惟가 아닌 思惟가 잇스라. 無에 대한 思惟를 생각하는 이가 잇슬지도 모른다. 그러나 存在를 떠나 無를 생각 할 길이 잇슬가. 無에 대한 思惟는 어디까지던지 存在 속에서 외여지는 無에 대한 思惟 또는 無 속에서 읽어지는 存在에 대한 思惟가 아닐가. 思惟가 存在를 떠날 때 思惟 벌서 思惟가 아나니 存在는 어디까지던지 思惟의 地盤이요, 根源이 아니면 안된다.

思惟는 存在에 열매이고 存在에서 흐르고 存在에 도라 온다. 思惟를 가지는 人間이 그 자신 한 개의 存在인 것과 한가지로 人間에게 주어진 思惟 그 自體도 어느 意味의 存在가 아닐가? 存在가 思惟를 나허놓는 한에서 人間이 思惟를 가진다는 것은 人間이 思惟를 가진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새로운 그리고 重大한 意味를 가져온다. 우리들은 人間이 思惟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思惟는 그대로 思惟가 아니고 存在에 대한 存在에 향한 思惟라고 보았다. 人間이 思惟를 가진다는 것은 人間の 思惟를 가지는 것과 아울러 人間이 存在 속에 잇다는 것을 意味한다.

人間이 存在 속에 잇다. 人間の 周圍에 만흔 存在가 만흔 모양으로 둘러 잇다. 人間の 思惟는 이 만흔 存在에 향하고 이 만흔 存在는 人間の 思惟를 불러 이르킨다. 우리들은 여기서 存在가 人間の 思惟의 眞實한 그리고 久遠한 課題임을 아나니, 哲學이 認識論에 압서 形而上學(存在論)에서 그 본대의 領域을 차저내인 것이 가장 適當한 出發이라고 보지 안혀서는 안된다.